



- 2019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창의가 넘치는 충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없을까?

일 시 | 2019년 12월 23일 (월) 14시
장 소 |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주최·주관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자원분과 위원회)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 추진목적

- 늘어나는 관광 인구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정책수행자와의 토론을 통해 충주시 지역 관광 활성화 모색
- 충주시의 관광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회과 함께 의제를 생성 지역 주민들 함께 거버넌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개 요

- 주 제 : 창의가 넘치는 충주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없을까?
-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14:00
- 장 소 : 호암공원 생태 전시관
- 참석대상 : 50명(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 주 최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 관 : 경제자원분과 위원회

3 주요내용

- 1부 : 개회식
 - 인 사 말
 - 이규홍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협의회장
 - 김정옥 경제자원분과 위원장

○ 2부 : 토론회 - 좌장(이재욱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1) 주제발제

- 발제1 :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색

2) 지정토론

- 토론1 : 김광표 단양군의회 의원
- 토론2 : 김원일 충주시 체험관광 센터장
- 토론3 : 곽원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팀장
- 토론4 : 조중근 충주시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 토론5 : 윤장진 경제기업과 시장유통 팀장
- 토론6 : 길경택 예성문화연구회 회장

3) 자유토론

4 프로그램

시간	내 용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인사말 - 인사말 ·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경제자원분과 위원장
-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취지 설명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이재욱 공동회장 ◦ 주제발표 - 발제1.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색 -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교수
-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 토론1 : 김광표 단양군의원 - 토론2 : 김원일 충주시 체험관광 센터장 - 토론3 : 박원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팀장
-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4 : 조중근 충주시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 토론5 : 윤장진 경제기업과 시장유통 팀장 - 토론6 : 길경택 예성문화연구회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심경락 경제자원분과 부위원장 ◦ 서 기 : 김영신 세프로 충주지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및 폐회

5 기대효과

- 지역 현안문제 주민참여 기반 조성
- 충주시 관광정책 제안으로 관광 활성화

주 제 발 표

김 태 진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교수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색 :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9. 12. 23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한국정책연구소]

tjkim@ut.ac.kr

1

강사: 김태진 교수

-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현재]
- 공공관리학회 부회장 [현재]
-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역]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민간전문위원
- 외교부, 특허청 정책실명제 위원
- 국토교통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평가 위원 [역]

2

순서

- **관광정책 혁신의 구성요소**
- **관광정책의 성공요인**
- **관광정책의 수립시 고려사항**
- **국내 관광정책의 주요 성공사례**
- **충주 관광정책에 대한 토의사항**

3

관광정책 혁신의 구성요소

4

혁신의 의미 및 특징

- 혁신 : 혁신, Innovation

- 혁신 : 자기 중심의 변화

- 개혁 : 타인 중심의 변화

예 : 환골탈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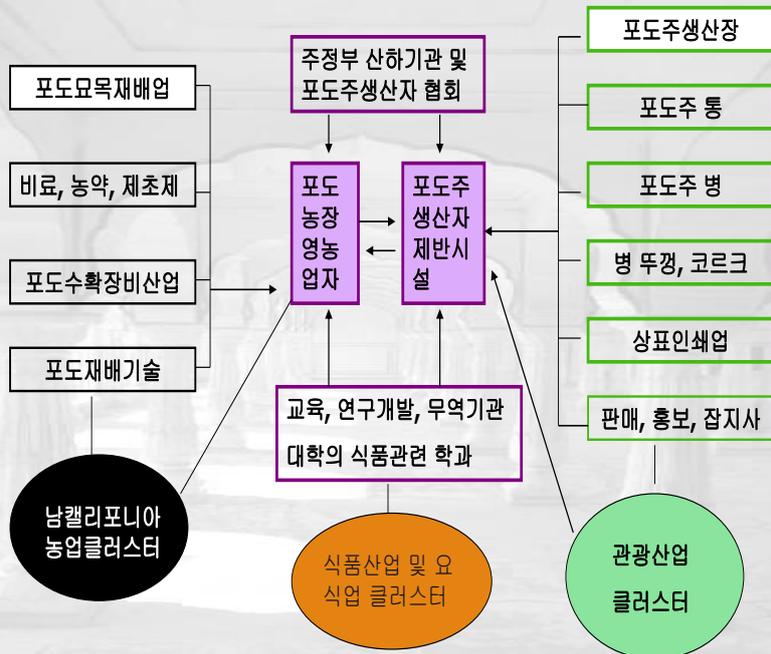
5

관광정책 혁신의 구성요소

- 주체 :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 ✓ 구심점: 충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역할: 상호협력, 공동학습
- ✓ 조직 내외부의 소통 및 아이디어 공유
- ✓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구축(CA. wine 사례)
- 관광정책 혁신기반 마련 및 제반 활동

6

예 : Southern California Wine Cluster



7

관광정책의 성공요인

8

관광정책의 성공요인과 확산과정

◆ 관광정책의 성공요인

- 학습(Learning), 네트워킹(Networking)
상호작용(Interaction), 혁신(Innovation)
역동적 변화발전(Dynamic change)

◆ 관광정책의 혁신을 통한 확산과정

- 지역의 위기요인에 대한 인식
- 소수 혁신자에 의한 혁신의 출발
-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학습과 지역의 자가증식

9

관광정책의 수립시 고려 사항

10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의 고려 사항

- 총주의 특성화된 장기적 비전(vision) 설정
- 총주의 내/외부환경분석
 - ✓ SWOT분석을 활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장기 변화예측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망
- 지역자체의 내부 혁신 역량 평가
 -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 주체 유무, 전문인력 규모, 시설, 문화관광자원, 가용재원 등 평가
- 관광정책의 방안 수립
 - ✓ 환경 분석 및 내부역량평가에 기초하여 관광자원 테마, 분야, 주도 혁신 주체 등 결정 및 추진 전략 수립

11

국내 관광정책의 성공사례

12

함평군 사례 : 나비 축제

- 함평군의 지역 여건
 - ✓ 특징 없는 관광자원, 인구 4만, 주력상품[고구마]
- 이석형 군수의 리더십
 - ✓ KBS PD (자연은 살아있다. 다큐멘터리)
- THEME 선정 과정 : 나비, 친환경
- 곤충연구소 설립, 체험교육의 중요성,
- Brand 전략 : 나비쌀, 나비브랜드[나르다 개발]
 - ✓ 나비쌀 전량 예약판매(친환경), 인구감소세 둔화
 - ✓ 수입 증가

13

평창군 사례 : 브랜드 개발

- 함평군의 지역 여건(장점)
 - ✓ 천혜의 자연환경, 인구 4.6만, 다양한 문화재
 - ✓ 대규모 리조트
- 함평군의 지역 여건(단점)



14

Brand 개발



15

Brand 개발



HAPPY 700의 의미

HAPPY 700: 가장 행복한 고도인 해발 700M를 상징화

Health: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

Amusement: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

Peace: 마음의 평화유지가 가능한 곳

Party: 친교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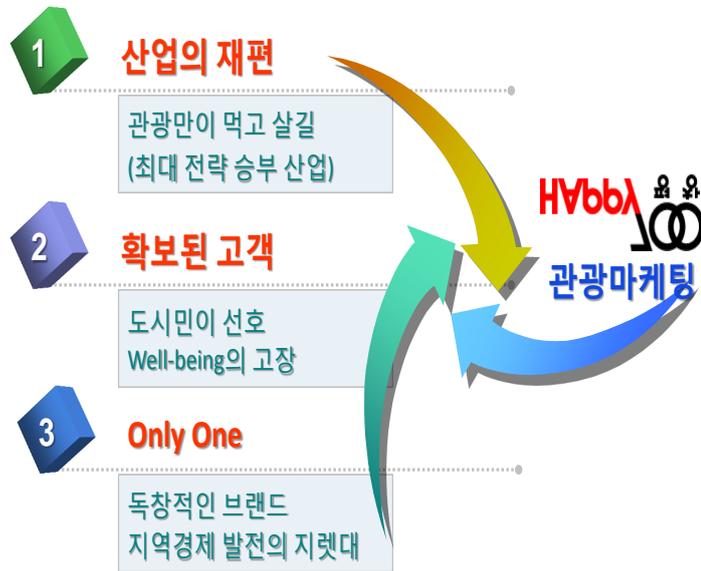
Young: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곳

해발 700m 지점은 인체 생체리듬, 동식물의 생육에 최적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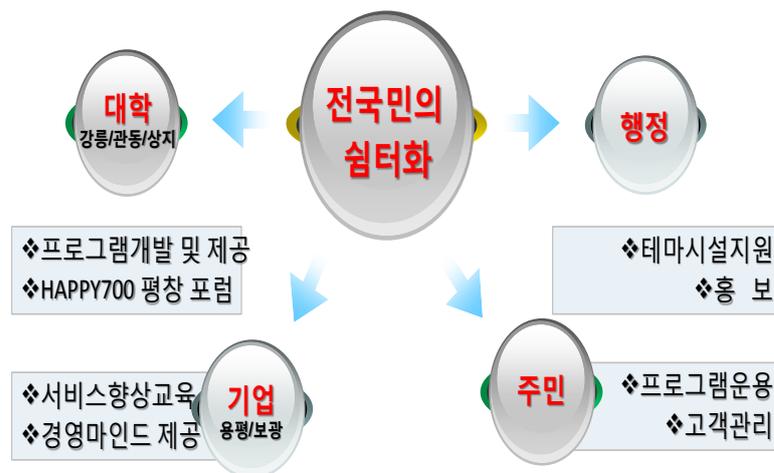
❖ HAPPY 700 평창 선포('99년도) ⇒ Brand 개발

16

추진 배경



추진 체계



❖ 관 + 학 + 기업 + 주민 ⇒ 지역혁신체계 구축

이천시 사례 : 향토자원활용과 관광혁신

●이천시 도자산업 현황

- ✓ 1984년 관요 폐쇄이후 도예인 운집지
- ✓ 도자산업의 집적지 (919업체/ 전국 1254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 ✓ 풍부한 인적자원(우수한 도예인력 및 전문교육기관)
- ✓ 도자기 생산에 적합한 토질
- ✓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대학, 요업기술원, 도예업체)
- ✓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 ✓ 도자도시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도시로 성장

19

충주 관광정책에 대한 토론 사항

- 충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혁신주체?
- ✓ 혁신주체 및 구심점
- 충주 관광의 theme 선정?
- ✓ 향토산업, 관광자원,
- 충주시 관광, 축제, 지역상품 관련 Brand ?
- 충주시 관광정책의 강점과 약점, 보완방법?

20

감사합니다.

토론 1

윤 장 진

경제기업과 시장유통 팀장

충주누리야시장과 관광활성화 방안

-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위축으로 새로운 돌파구 모색
-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 활성화 도모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시장내 도입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야시장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19. 12.
- 사업지 : 자유무학시장 일대
- 사업비 : 10억(국비5 / 도비1.5 / 시비3.5)
- 사업내역
 - 매대제작, 조명시설 등 설치, 공동조리장 설치, 주변환경정비 등 기본 인프라 구축 : 882,000천원
 - 야시장 홍보 및 소모품 등 : 49,000천원
 - 야시장 행사진행 : 47,000천원
 - 매대정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 22,000천원
- 사업추진사항
 - 야시장 조성사업 공모 선정(행정안전부) 2018. 3월
 - 충주누리야시장 조성계획 수립 2018. 7월
 - 야시장조성 지방비 확보 2018. 9월
 - 야시장 시설물 설치 실시 용역등 사업시행 2018. 10월



□ [누리야시장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5월 ~ 10월(매주 금, 토 17:00~23:00)
- 운영장소 : 누리센터 주차장
- 운영규모 : 판매대 20
- 매대운영 :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평가 선정)



□ [2019년 누리야시장 성과]

○ 야시장 매출 성과

일매출액 (야시장전체)	일매출액 (1개 매대 평균)	일자리창출		특이 사항
		총 인원	청년	
7,500천원	400천원	19명	9명	문화복합공간조성

○ 야시장 개장 전후 전통시장 유입고객

구 분	전통시장 유입고객	관광객 비율	비고
누리야시장 전	50명 ~ 80명	0%	
누리야시장 후	600명 ~ 800명	40%로 점점 증가	

○ 야시장 개장 효과

- 경기침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쇠퇴하여 가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밤이면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문 닫은 상점들로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들의 방문 증가로 활력을 찾게 되었으며, 기존 상인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누리야시장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 체류형 관광 유도

- 야간에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이 부족한 충주시에서 야시장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체류형 관광 유도

○ SNS를 통한 홍보

- 특색있는 야시장 방문후 관광객들의 SNS를 게시 등을 통해 야시장 뿐만아니라 충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

□ [충주시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한 누리야시장 지원]

- 야시장조성 사업을 통한 기본 인프라구축은 완료 되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 문화예술과를 통한 지역 예술인의 공연 및 지역 행사 진행 등
- 별빛투어 등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 등.



토론 2

길 경 택
예성문화연구회 회장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패러다임 모색

- 충주의 역사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길 경 택 예성문화연구회장

문화라는 말속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모습 일체가 반영된다. 사람이 누리는 삶의 형태, 즉 정치, 경제, 사회 모두에 문화라고 이름을 붙이면 다 통용이 된다. 정치문화, 경제문화, 사회문화, 선사문화, 중세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의복문화 등등 인간의 흔적 모두에 붙일 수 있는 용어일 것이다. 따라서 충주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모든 것이 다 충주의 문화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자료는 모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다 함께 행한 일상적인 것이거나 보편적인 것일 수 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에서 다른 나라, 다른 지방과의 같은 것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우리만의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열거하고 새로 찾기보다는 이미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상적인 것은 버리고 우리만의 것을 편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1) 적합하지 않는 것 버리기

몽고가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기까지에는 징기스칸 같은 영웅도 있었지만 야율초재 같은 명 참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야율초재는 징기스칸의 제갈량이었다. 야율초재는 대몽고를 건설하는 방법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에서 답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 충주의 역사, 문화적 요소와 그 가치는 차고 넘친다. 역사적 문화자료는 시대별로 모두 존재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서 이곳을 빼면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의 중원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였다. 백제의 집터유적이 탑평리에서 확인되고, 철 제련시설은 칠금동에서 확인된다.

고구려의 무덤이 대소원면에서 발굴되었고, 충주고구려비가 중앙탑면에 있다. 신라의 무덤들은 누암리, 하구암리 뿐만 아니라 호암동, 연수동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삼국 모두를 경험한 지역은 충주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신라, 백제, 고구려의 중심이 아니기에 짝퉁이라며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 세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문화요소를 창출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다.

고려시대 겪었던 대몽항쟁은 우리 민족에 닥친 가장 강력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김윤후와 충주민이 단합하니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고 도시이름까지 국원경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 대몽항쟁의 이야기는 몽골이 한반도 전역을 침공하고 분탕질을 쳤기에 강화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 까지 어느 지방에나 언급할 수 있는 문화자료이다. 그러나 이를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군관민의 단합된 힘으로 싸워 이겼다는 명확한 기록과 장소, 증거가 있는 곳으로 밝히고 다듬는다면 중원인의 마음과 세계인의 관심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동네이야기인 것처럼 관심이 없다. 이 정도라고 하면 충주시민의 날도 몽고와 싸워 이겨 국원경으로 승격된 날을 택하여 잔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충주에는 조동리 선사박물관이 있고, 충주고구려비가 있고, 백제의 야철유적이 있고, 신라의 고분과 중앙탑이 있다. 장미산성, 남산성, 대림산성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권도 있고, 우륵의 가야금곡이 있고, 신라의 탄금대와 임경업의 충렬사, 김생과 강수의 서도가 있다.

또 충주에는 비내섬이 있고, 사과밭이 있고, 유기농 채소밭도 있고 안개도 많다. 삼색온천과 대몽항쟁, 동락전투에서 보여준 충주민의 호국의지도 있다. 투금의 일화로 유명한 김세렴, 임금이 내려준 잔을 펴 한잔 술을 마신 손순효를 비롯한 인물들의 묘소도 많다.

또 제법 많은 골동품상들도 있고, 천지인 삼등산, 충주호, 탄금호, 달천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상품이 될 것인가를 골라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브랜드(예를 들어 생태, 문화, 고품격..) 개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홍보(장성의 흥길동, 평창군의 소도독놈 마을,

메밀꽃 필 무렵..), 국내외의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보자. 버리다 보면 충주의 독특함을 가미한 엑기스만 남을 것이다.

2) 콘텐츠의 개발

충주만의 엑기스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삼국 모두를 포괄하였다는 것일 테고, 자연 속에서는 내륙최대의 호수를 끼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신사속에서는 강철 같은 국난극복 의지가 존재하고, 면면히 이어 내려온 천인지의 중심사상이 남아 있다. 약간의 선민의식이 존재하고,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 또한 강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올바른 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료의 발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버리려고 정리하여 쌓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지만 우리 충주는 그동안 충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 한번 못 해보았다.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충주학(忠州學)’ 또는 ‘중원학(中原學)’을 연구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역사 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아직 기본적인 사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예성문화연구회 같은 단체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법 조사가 된 것 같지만 아직은 걸핍기에 지나지 않는다. 시사 편찬위원회 같은 충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민관이 연합한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자료의 지속적인 정리가 가능할 테고, 그 속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것이다.

문화정책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충주만의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충주에서 천지인 제단을 만들었다. 저는 이는 실패작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천·지·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충주에서 만큼은 천·인·지 해야 한다. 충주에 천등, 인등, 지등의 3등산이 있고, 그 아래에 세상의 중심이 될 기운이 뭉쳐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주만큼은 천인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적

독특함입니다.

관광을 위한 정책도 충주만의 것이어야 한다. 충주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면 탄금대 근처는 보다 정적인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왜군과 싸우다 죽은 8천 고향의 넋이 서린 장소이기에 음주가무와 화려함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이다.

내륙 최대호수의 개발 보다 정교함이 필요하다. 충주호는 수자원공사와 충주, 제천, 단양이 어우러지고 있기에 전체적 합의에 의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탄금호는 충주와 수자원공사만의 합의를 통해서도 밑그림이 가능하다. 탄금호에 대한 개발과 정비가 종합적,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공해 관광선을 띄워 탄금대와 창동마애불, 중앙탑, 고구려비를 관람하게 하고, 전망 좋은 곳에 정자(사휴정)를 설치하여 경치를 조망하고, 조정과 수상스키, 카누, 요트를 타는 곳도 마련하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강가에 집 한 채 짓는 것도 경관을 고려한 세심함과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한다.

역사 속에 삼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을 발굴하고 잘 정리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이를 알차게 설명하기 위한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다. 다행히 국립충주박물관의 건립이 가시화되었다. 한강을 대표할 수 있고, 고구려를 말할 수 있는 박물관이 충주에 건립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충주에도 삼국 촌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마을이 어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물론 최근 계획도시 흔적이 찾아지고는 있지만 빙산의 일각 일뿐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 이런 과제는 후손들에게 미루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석처럼 켈 것인가의 수단만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집중화하고 가장 충주적인 것으로 문화정책이 시작될 때 그것이 가장 세계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킬러콘텐츠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우리가 팔 수 있고 세계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파레토기법을 써서 상위 20%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고급 호텔이나 펜션, 내륙수면을 이용한 카누나 요트, 황제처럼 대접 받는 최고급 스파와 황제골프장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박리다매의 상술에 따라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 같이 방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값싸지만 맛난 머슴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손님을 유치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롱테일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마케팅의 고수라고 일컬어지는 백화점의 경우 대 바겐세일도 하고, 폐점 후 몇몇 특정인을 위한 개장도 한다. 백화점의 바겐세일은 롱테일기법에 해당하고, 폐점 이후 특정인을 위한 개장은 파레토기법이다.

충주의 문화정책에도 절실하다. 국내 모기업이 콘도를 지었다. 여기저기 지은 콘도를 찾던 손님들의 평은 중하(中下)라고 평가했는데, 강원도에 솔비치를 최고급으로 지으며 이미지 쇄신을 하여 상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적절한 병행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

충주시의 문화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 정신적 가치의 모든 측면에서 대부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여타 어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다. 전 시대를 망라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와 분야별로 다양한 자료들이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존재한다. 이는 역사상 충주가 가졌던 위상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 된다.

자연 자원의 측면에서는 내륙의 바다라고 하는 충주호가 있고 수려한 강과 산이 존재한다. 우리가 정을 쏟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는 그만한 산, 강일 수 있다. 그러나 삼등산은 천하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인공으로 형성된 탄금호 또한 역사문화경관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원이다.

정신적으로도 중심사상, 선민의식을 가진 자존심 높은 지역이고, 위기를 당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로 이를 극복해 내는 자랑스런 고을이다. 여기에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랑도 하지만, 따스한 사랑을 가진 풍성한 마음 받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

이러한 충주의 문화자원을 제대로 평가하여 종으로 횡으로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너무 자료가 많다보니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소중한게 느껴진다.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을 하며 나름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도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 문화의 경쟁시대이기에,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문화자원 중에 충주만이 가지는 강점을 집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도 다른 지역과 차별이 없다면 과감히 버리자. 아주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놓자는 것이다.

충주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킬러콘텐츠로 개발하는데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급화를 지향하든 대중화를 꿈꾸든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기 발표된 ‘충주의 문화적 가치’에서 요약한 것이다.)

토론 3

조 중 근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충주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모색

- 새로운 시대 및 트렌드가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관광발전 계획 -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1. 들어가며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충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 학자나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충주시의회에서 관광, 문화, 축제 등과 관련해서 업무 및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충주시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축제 이미지에 대한 의문 : 충주하면 뭐가 떠오를까?

2. 충주의 문화 관광 축제의 기본 현황

01. 충주의 문화, 관광, 축제의 현재(문제점)

■ 충주시는 관광자원이 참 많다!

- 하지만 풍부한 관광자원과 인구 규모에 비해 대외적으로 낮은 경쟁력이 문제 : 3색 온천(수안보, 양성, 문광온천), 호수자원(충주호, 탄금호), 역사문화자원(중양탑, 충주고구려 전시관, 탄금대, 목계나루), 자연자원(계명산 종댕이길, 여러 휴양림, 비내섬, 무술공원)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충주의 대표 축제 :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시대에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이 없이 치러온 충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행사들임.
 - ▷ 제49회 우륵문화제 ▷ 제35회 수안보 온천제 ▷ 제22회 양성탄산온천축제
 - ▷ 세계무술축제 ▷ 충주 호수축제
- 올드한 대외 이미지 : 온천관광위주의 한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역사 문화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왔음.
-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 정책 미흡 : 감소추세인 관광객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함.

- 단양군 / 만천하 스카이워크, 수양개 빗터널, 레저도시, 고수동굴 리모델링, 전통시장 체험 등
- 제천시 / 케이블카, 모노레일, 한방음식과 힐링 관광도시, 청풍호 주변 관광상품 등
- 증평군 / 에듀팜 특구, 좌구산 자연휴양림 등
- 문경시 / 문경새재 도립공원 산책길, 오미자 관련 관광 축제 등
- 충주시에는 현재 유휴공간은 많으나 이미 개발된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삼탄유원지, 목계나루 강배 체험관, 고구려비 전시관, 사조 리조트 스키장, 와이키키 리조트, 충주코타 리조트, 무술공원내 라이트월드, 충주 공예 전시관, 고구려 천문 과학관 등

02. 충주의 문화, 관광, 축제의 잠재력

■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또 다른 장점)

- 요즘 여행의 새 바람은 뉴트로(Newtro) 관광이 대세 : 추억의 역사, 자연 수상자원을 이용한 레저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 (비내길, 하늘재, 삼탄역, 악어봉, 심향산 증덩이길, 활옥동굴 등)
 - 인문학적인 역사 문화와 어울러지는 스토리 텔링 및 체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가족 단위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을 선정 유입을 유도해야 함.
 -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반경 50km 이내 800만 이상의 유입 시장을 보유함.
 -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사업 전개, 야간 관광을 위한 문화 공연, 축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 개발.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 철도망 건설에 따른 광역접근성 향상으로 그 연계 상품을 위한 준비가 필요 : 중부내륙철도로 인하 역세권 개발, 충북 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등
 - 내륙의 바다라는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통한 풍부한 물 자원을 활용 충주지역만의 대표 상징성을 나타내는 차별성에 중점을 두어야함 : 수상레저, 자전거길, 낚시, 캠핑 등
 - 수변 관광도시로서 야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탄금호에 새롭고 특색있는 야간 경관 계획이 수립되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 :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야간 무지개 길 조성, 중앙탑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



3.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 새로운 시대 및 트렌드가 반영된 충주시만의 미래 지향적인 관광발전 계획이 필요!

- 국민소득 향상 및 여가 시간의 증대로 관광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중심 속에 이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을 인질하고 수요자 중심의 충주 관광 현황을 파악해서 대 내외 변화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진단이 요구 되며 문화, 관광, 축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정립이 중요함.

01. 충주 관광의 현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주 관광의 새로운 계획과제를 도출해야 함.

■ 충주 문화, 관광, 축제를 위한 테마 및 브랜드 개발 필요 : 선택과 집중!

- 중주관광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통합 브랜딩 마련
- 산재된 중주 관광자원의 통합 홍보 마케팅 방안 강구

■ 잠재된 역사와 문화, 관광, 독특한 축제자원의 발굴과 육성 필요!

- 잠재자원 발굴 및 최신 관광 트렌드 반영 관광개발 구상
- 현재 추진되는 산업과 연계를 통한 현실성 제고

■ 유희공간 및 기계발 관광자원의 재발견

- 유희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제시
- 기존 사업에서 확장된 젊고 새로운 S/W사업 도입 필요

■ 실효성 있는 단계적 세부사업 도출

- 우선 순위 사업을 통한 사업 실행 효과를 극대화
- 특히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 발굴
- 단계적 시나리오를 통한 중장기 사업 발굴

4. 맺는 말

지역개발은 지역문화와 특색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더불어 시대적 트렌드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고 있을 때 성공가능성의 확률이 높을 것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지역’ 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은 과거 국가에 의한 수직적,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난 경제정책 및 개발정책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의 자원, 지역 특성화 산업, 생활 여건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엄철호, 2019). 지역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으로는 주민 삶의 질 개선, 문화의 현대화, 문화적 교류 증진, 사회적 변화와 선택,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자부심 고취, 사회적 편의시설 개선을 들 수 있다. (Nunkoo, Smith & Ramkissoon, 2013; Perdue, Long & Allen, 1990; Sharpley, 2014).¹⁾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이런 인식에서 우리 충주의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관광개발에 대한 고민에서 이 발제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

우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인문학적 감성이 반영된 계획이 절실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공적 사례를 탐색해 답사해 보았다. 찾아가는 인문학 답사라 할 만큼 느끼는 바가 많았다. 우리 충주시는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과업에 직면해 있는데, 새로운 건물과 시설의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정체성과 특색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기존의 역사문화유적이거나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관광 개발은 일관된 테마와 콘텐츠로 유동성 있는 관람소재 개발이 필연적 전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 새로운 듯 기억에 남는 감성어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 다시 와도 지루하지 않고 푸근함과 희망을 담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변모를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우리 시대의 인문학과 현장철학이 가미된 스토리텔링과 그를 위해 소재발굴이 절실하다 하겠다.

-
- 1) Nunkoo, R., Smith, S. L., & Ramkissoon, H. (2013). Residents' attitudes to tourism: A longitudinal study of 140 articles from 1984 to 2010.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1), 5-25.
 - Perdue, R. R., Long, P. T., & Allen, L. (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586-599
 - Sharpley, R. (2014). Host perceptions of tourism: A review of the research. *Tourism Management*, 42, 37-49.

